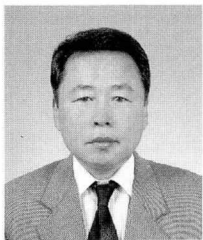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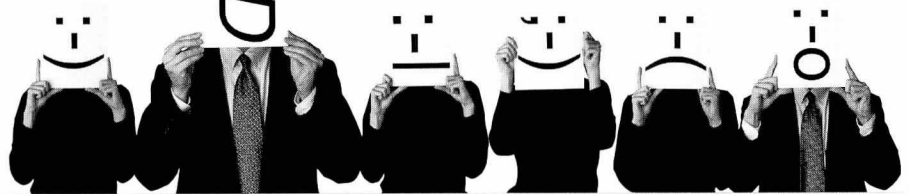


무항생제 축산물 원년이 시작(始作)되다. ㄷ



사)한국오리협회 고문
장규호

드디어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이 친환경농업 육성법 및 하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2007년 3월 28일부터 친환경 인증품에 신규 도입되었다. 도입배경에는 유기축산기술이 낮은 농가의 친환경축산

진입을 촉진시키고 소비자의 수요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무항생제 축산물의 중요성은 인정하나, 많은 축산인들은 흡사 사막에서 신기루를 보는 듯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무항생제 축산을 한다고 하면, 으레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다. 先覺者(선각자)들이 어렵게 얻은 귀중한 정보를 그냥 흘려버린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오리업계는 아니지만 타 축종에서 무항생제 축산에 대하여 鼓舞的(고무적)인 결과가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다. 그것은 기존 畜産(축산)에 대한 패러다임이 흔들릴 정도이다. 아니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동안 아무 쓸모도 없이 내팽개쳐 버렸던 썸바귀, 영정퀴 등을 전문 재배하는 농가들이 KBS 「생생

일요일」에 방영되었다.

암에 특효가 있는 산야초 라는 것이었는데 일전에 기능성 축산물에 관련된 보고서를 읽은 일이 있었다. 그 내용 중에 “한약재 부산물을 이용하여”라는 구절이 있었는데, 그것은 실상을 모르는 교수님께서 쓴 보고서라고 느꼈다. 실제로 부산물뿐 아니라 천연재료가 광범위하게 쓰여지기 시작했다. 오리업계에서도 유황, 세레늄, 아스타잔틴, 삼백초, 녹차, 해초, 오가피 등의 기능성 물질을 이용하여 우리를 사육하고 있다.

이것은 오리의 맛도 중요하지만, 오리의 건강상태를 개선시킴과 동시에 면역력을 강화시켜 맛도 좋고, 건강한 오리고기를 소비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오리고기에 대한 평가를 높여 개인의 발전은 물론 업계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 세계 각국과의 FTA가 추진될 텐데,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오로지 품질 경쟁이다.

아무리 신토불이라고 외쳐도 결국은 값싸고, 품질 좋고, 안전한 제품을 생산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무항생제 사육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음 신문 기사를 소개한다. 무항생제 사육은 어느 틈에 우리의 옆에 다가와 있다. 다만 우리가 느끼고 있지 못할 뿐이다.